

wedding21

Luxury Wedding Magazine
wef.co.kr

2014. 9

BEST WEDDING BRAND *20*

맛있는 웨딩홀

까칠한 하객의 입맛을 사로잡다

신랑도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Groom Beauty Guide

입소문 난 인기 혼수 리스트

즐거운 허니문을 위한 세계 축제

Beautiful *DIVA*

디아뜨르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낸 가수 바다

AR | 증강현실 매거진
어플로 만나는 또다른 세상,
AR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뜨거운 두 여자
와일드플라워 린넨
영송 마틴 대표와 비키 정 대표

결혼식과 파티, 그 외 다양한 이벤트의 스타일링 연출자로서 이 일에 매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영송 마틴 대표와 비키 정 대표에게 물었다. 파티 플레이스를 더욱 돋보이게 할 디자인 기획을 시작할 때부터 흥분된다고, 그녀들은 입을 모아 답했다. 린넨과 플라워, 다양한 테이블 데코레이션 디자인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하나하나 셋업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는 두 여자, 웨딩 트렌드를 이끌며 '색깔 있는 웨딩'을 선도하는 영송 마틴·비키 정 대표를 만났다.

에디터 주혜선 포토그래퍼 송익수



우선 와일드플라워 린넨에 대해 소개해달라.

영송 와일드플라워 린넨은 리넨을 활용해 이벤트 공간을 좀 더 특색 있게 디자인하는 회사다. 일반적인 공간 스타일링처럼 플라워로만 데커레이션 하지 않고 리넨과 플라워의 조화를 꾀하며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리넨의 컬러나 체어 커버의 소재를 '패션'이라 한다면, 여기에 '플라워'라는 액세서리로 멋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미국 내에서도 리넨과 플라워의 조화를 꾀하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

비키 덧붙여 와일드플라워 린넨 코리아는 철저하게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한다. 이미 디자인된 상품을 놓고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의 취향, 개성, 스토리 등을 고려해 여러 번의 상담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설립 과정을 듣고 싶다.

영송 시작은 조카의 결혼식을 설계하면서였다. 당시 플라워만으로 이벤트 공간을 연출하기엔 그 종류와 텍스처가 한정적이었고, 획일화된 데커레이션 환경에도 한계를 느꼈다. 웨딩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러다 플라워에 리넨 스타일링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처음 시도한 것은 체어 커버를 고급 실크로 연출한 거였다. 이것이 공간과 접목되자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컬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이 리넨이고, 디자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체어 커버다. 리넨과 체어 커버, 여기에 플라워를 다양하게 접목했더니 기존 형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벤트 공간을 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트렌드에 미국 내 이벤트 회사들도 동의했고, 그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한국 지사인 와일드플라워 린넨 코리아가 국내에 론칭한 지 1년이 되었다. 한국 지사는 어떻게 론칭하게 되었으며, 국내시장 분위기는 어떤가.

영송 와일드플라워 린넨이 국제적인 기업이다 보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지사에 대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왔다. 대부분 세계적인 재벌 기업들이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나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자칫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본질이 변질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열정과 꿈이 있는 지금의 와일드플라워 린넨 코리아의 비키 정 대표를 만났다. '우수한 수재가 되겠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한국 지사를 맡겼다. 아주 흡족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우리 스타일을 점점 인정받고 있으니 말이다.

비키 국내시장도 공간 연출이 많이 콘셉트화되었지만, 아직 웨딩에 있어서는 컬러 사용이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와일드플라워 린넨을 떠올리면 굉장히 화려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화려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컬러를 세련되게 사용하고, 또 적절히 절제를 하는 것. 절제된 컬러에 전체적인 디자인 볼륨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이다.



와일드플라워 린넨은 언제나 특색 있는 디자인의 테이블 데커레이션을 선보인다. 디자인 영감은 어디서 얻는가.

영송 평소 패션을 포함해 많은 분야의 히스토리를 접하고 있다. 누군가 이벤트 연출에 대한 제안을 하면 그 히스토리를 떠올리며 영감을 얻는다. 알고 있는 히스토리를 그에게 접목시켜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떠올리는 것이다.

비키 영송 마틴 대표에게 디자인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다. 국내에서 웨딩과 프라이빗 파티를 디자인해야 할 때면 늘 영송 대표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녀는 한국 정서에서 나온 제한된 사고로 디자인을 기획할 때 채찍질을 한다. "디자인할 때는 아무것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며, 그래서 일상 속 모든 것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는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웨딩 공간의 디자인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영송 아무래도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큰 틀 안에서 그들이 몰랐던 디테일 요소들을 세밀하게 제안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그려주고자 한다.

비키 또한 공간과의 조화를 통해 장소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그 안에 데커레이션을 녹여내려 한다.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앞으로 활동 계획을 전해달라.

영송 롯데에서 4년간 웨딩 컨설팅을 하는 동안 항상 원하는 것이 있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먼 훗날에도 특별한 이야기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이벤트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당시 이 '색깔 있는 웨딩'을 위해 많은 이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덕분에 나의 신념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한국 지사 비키 정 대표와 국내 웨딩업계를 이끌고 있는 <웨딩21> 매거진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이러한 열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자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비전이다. **비키** 와일드플라워 린넨 코리아는 미국의 선진화된 이벤트 문화를 받아들여 한류와 적절히 조화시키려 한다. 중화권과 동남아시아권으로 한국의 이벤트 문화를 널리 알려 아시아권 이벤트 문화를 리드하는 것이 목표다. **www**

문의 070 4492 4535





